

강준이,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금…새 역사 썼다

日 선수들 제치고 남자 스트리트 1위…남동현, 승마 12년 만 우승
광주 최민규, 카누 역대 첫 정상…3대3 농구·e스포츠도 최초 ‘금’

한국 스케이트보드의 17세 기대주 강준이(서울영등포고)가 개최국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에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겼다. 승마 국가대표 남동현(37)도 12년 만에 마장마술 개인전 정상을 탈환하며 금빛 행진에 가세했다.

한국 선수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9일차인 27일 오후 5시 30분 현재 금메달 18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8개 등 총 7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에 자리했다.

강준이는 이날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 홀에서 열린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승에서 최종 합계 180.85점을 기록, 일본의 사사키 도아(172.35점)와 오노데라 긴우(168.11점)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스케이트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남태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세계적인 강세를 보이는 개최국 일본 선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거둔 성과여서 의미를 더했다.

결승은 위기와 반전이 교차했다. 강준이는 45초 동안 계단과 난간 등 경기장 코스를 자유롭게 주행하는 ‘런’ 세션 1차 시기에서 84.83점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2차 시기 막판 넘어지면서 69.79점에 그쳤다. 이어진 3차 시기에서는 실수 없는 주행으로 88.45점을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트릭’ 세션에서는 더욱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다. 강준이는 준비한 ‘얼리 백 쓰리 힐플립 립슬라이드’를 시도했지만 1·2차 시기에서 연달아 넘어지며 모두 0점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집중력을 되찾았다. 강준이는 앞서 실패했던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키며 92.40점의 고득점을 획득했다. 런 세션 최고 점인 88.45점과 합산해 180.85점을 기록한 강준이는 일본 선수들을 따돌리고 한국 스케이트보드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이날 남동현도 일본 도쿄 승마공원에서 열린 마장마술 개인전 결승에서 마필 ‘레오니다스’와 호흡을 맞춰 75.190점을 기록, 중국의 위자이(75.050점)를 불과 0.140점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승마가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전에서 금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26일에는 펜싱과 e스포츠, 여자 농구에서 금메달 3개가 쏟아졌다.

오상욱·박상원(이상 대전광역시청), 도경동(대구광역시청), 황희근(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도쿄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45-44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이어진 단체전 4연패다. 앞서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이로써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도 5개로 늘려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기록 보유자인 구본길(6개)에게 1개 차로 다가섰다.

e스포츠에서도 첫 금메달이 탄생했다.

연제길·배재민·이광노가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전격투 게임 종목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세트 스코어 5-2로 제압했다.

스트리트 파이터6, 철권8, 더 킹 오브 파이터즈XV를 번갈아 치른 결승에서 한국은 2-2로 맞선 상황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승기를 잡았다. 배재민과 연제길이 승부처에서 힘을 내면서 이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완성했다.

여자 농구 대표팀도 금빛 행진에 가세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아이치 인터네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부 결승에서 일본을 75-70으로 몰리치고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외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농구가 우승한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이다.

앞서 남자 대표팀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 남녀 농구는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동반 우승을 달성했다.

25일에는 카누와 기계체조, 남자 3대3 농구에서 금메달 3개가 나왔다.

조광희·김효빈(이상 울산광역시청)은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레이크 카누 코스에서 열린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2인승(K2) 500m 결승에서 1분 31초859를 기록, 일본(1분32초176)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전날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두 선수는 이를 연속 우승하며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다관왕에 올랐다. 한국 카누가 아시안게임 남자 K2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990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쿄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 강준이가 기술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년 베이징 대회 이후 36년 만이다.

기계체조에서는 황서현(인천제고)이 여자 평균대 결선에서 난도점수 6.600점과 실시점수 8.100점을 합산한 14.700점으로 출전 선수 8명 가운데 1위에 올랐다.

1986년 서울 대회 서선열 이후 40년 만에 나온 한국의 여자 평균대 금메달이다.

남자 3대3 농구 대표팀은 한국의 아시안게임 역대 통산 800번째 금메달을 장식했다.

한국은 나고야 긴조후토역 광장 특별 코트에서 열린 결승에서 카타르를 19-10으로 제압하고 이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3대3 농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은메달,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4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이자 역대 하계 아시안게임 통산 800번째 금메달이라

는 의미까지 더했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광주 소속 최민규가 한국 카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최민규는 조광희·김효빈·장상원과 함께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결승에서 1분22초587을 기록, 중국(1분22초842)을 0.255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카누가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획득한 사상 첫 금메달이다.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연속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아시아 정상에 섰다.

특히 최민규는 남자 카약 4인승 금메달에 이어 혼성 카약 2인승 은메달까지 수확하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기계체조에서도 금빛 낭보가 전해졌다.

여서정(제천시청)은 일본 나고야 종합체육관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늘의 경기

종목	내용	시간	선수
사격	여자 25m 권총 단체 결승	09:40	왕지민·오예진·봉서민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	10:00	김나현·김수지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	12:30	김지욱·김영남
역도	남자 95kg 그립 A	17:00	원종범
배구	남자 예선 D조	19:00	대한민국-대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승	22:43	이재성 외 3명

대한민국 메달 현황 (2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금	은	동	합계
18	22	38	78

서 열린 여자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483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여서정은 아바지인 ‘원조 도마 황제’ 여흥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와 나란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선거인단 갈등’ 광주·전남체육회, 통합 분수령

창립총회 무산 속 대한체육회 유권해석…동수 구성 부칙 가능

흡수 아닌 상생·균형 통합 원칙 주목…초대 회장 선거 일정 촉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을 위한 광주·전남 체육계의 통합 작업이 초대 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정쟁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통합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초대 통합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광주와 전남의 선거인단을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정 권역에 선거권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6월 대한체육회가 양 체육회에 배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 가이드라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동수 구성 조항을 둘 수 있다는 해석이 반드시 1대1 구성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최종 선거관리규정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통합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창립총회 안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장 선거인단 구성 방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17일 예정됐던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와 창립총회가 무산됐다.

갈등의 핵심은 초대 회장 선거인단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전남도체육회 측은 대한체육회가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 배포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을 활용하면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따른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인구와 기초자치단체 수가 광주보다 많은 만큼 이러한 차이가 선거인단 구성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기존 회장선거 기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인구 100만~200만명 구간에 해당해 최소 선거인단 300명 기준을 적용받았다. 통합체육회는 인구 200만~500만명 구간에 해당해 최소 선

거인단 기준이 400명으로 높아진다.

전남은 22개 시·군 체육회를 두고 있는 반면 광주는 5개 자치구 체육회로 구성돼 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남이 광주보다 많은 선거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광주시체육회 측은 지난 6월 대한체육회가 광주·전남에 별도로 제시한 통합체육회 출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거인단을 4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광주권과 전남권, 시·군·구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규모와 등록선수 수, 기존 선거인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 권역이나 단체 유형에 선거권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통합 서약서에도 광주와 전남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흡수 통합이 아닌 상생·균형 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광주 측은 초대 회장 선거관리규정의 부칙에 양 지역 선거인단을 1대1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합체육회 출범 취지에 맞춰 첫 회장 선거부터 지역 간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동수 구성 부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인단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

놓으면서 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지역의 체육회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광주와 전남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체육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상위기관의 해석이 제시된 만큼 양측이 이를 존중하고, 통합 서약서에 명시된 상생·균형의 원칙을 선거관리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또 이번 논란은 초대 회장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인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광주와 전남의 회원종목단체 통합도 예정돼 있다. 초대 회장 선거에서 확립한 지역별 대표성 원칙이 향후 종목단체 통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통합체육회는 오는 12월 16일 전국 동시 지방체육회장선거를 통해 초대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와 창립총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지역 체육계의 관측이다.

창립총회 이후에도 법인 설립등기와 후보자 등록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선거관리규정 확정이 늦어질수록 정상적인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제 공은 광주와 전남 양측으로 넘어갔다. 양측이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균형이라는 통합의 원칙을 실질적인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